

#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의 '口業'

## 해외불교칼럼

인간의 의사소통기능 중 하나인 말은 적시적소(適時適所)라는 시의성과 근접성을 함께 지닐 때 전달의 역할을 극대화한다. 이는 바퀴 말해서, 때와 장소를 제대로 못 가리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는 뜻도 된다. 예컨대, '잘 먹고 잘 살아라' '요즘 나 개 참 걱정돼' 등도 본디 별말이 없는 말이지만 쓸 자리와 때를 잘못 가리면 꽤 성가신 일을 부를 수도 있다.

5월 24일 칸영화제에서 메가스타 샤론 스톤 보살님이 남의 카르마(業)를 들먹이다가 그만 나의 입의 카르마(口業)를 부르고 말았다. 정구업(淨口業)의 의미를 새삼 떠올리는 영국 BBC의 관계기사 중 일부다.

불교로 개종한 샤론 스톤은 현재까지 최소한 6만8000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대지진이 중국정부의 티베트정책으로 인한 카르마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카르마에 대한 그녀의 정의는 혹시 이런 걸까? "내가 나쁘니까 네게 나쁜 일이 생긴 거지." 산스크리트어로 단순히 '행위'를 뜻하는 카르마는 불교, 힌두교, 시크교가 공유한 심오한 철학개념으로 불교종파들 간에도 그 풀이가 여러 갈래다.

런던불교사원의 담마다신 법사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생이나 과거에 지어진



샤론 스톤의 '한마디'는 지진 참사를 겪은 중국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구업'이 되고 말았다. 사진은 중국 쓰촨성 지진 장면과 샤론 스톤.

일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카르마라 하는 바, 이는 복합적인 인과의 법칙을 정리하여 과거의 어느 행적에 대한 응보의 문제로 수렴한 것이다. 동기는 행위로, 행위는 다시 결과로 이어진다. 대체로 행위를 유발한 동기, 곧 윤리적 의도가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자비와 관용과 같은 윤리적 의도는 더욱 긍정적인 공덕의 결과를 맺는다. 다른 한편, 자기과시나 탐욕과 같은 비윤리적 의도는 그 행위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결과를 부른다. 단, 지금까지 복잡한 인과상에서는 기타 요소가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인

과의 법칙은 인도 고유의 철학적 개념이 바, 이를 잘 고르고 다듬어 널리 가르친 이는 붓다다." 이상이 보도 중 일부인용이다. 그러자 지구촌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샤론 스톤의 발언은 에이즈 동성애와 혼전섹스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는 뉴에이지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백치 같은 비윤리적 의도는 그 행위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결과를 부른다. 단, 지금까지 복잡한 인과상에서는 기타 요소가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인

생했죠. 샤론 스톤님은 피해지역의 인구 분포와 카르마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시야했어요. (테리, 런틴) '샤론 스톤님께선 언제부터 동양철학에 그처럼 통달하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賢者)다. 나는 내가 아는 게 없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일부 유명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덩달아 뛰어보겠다고 풍수를 떨죠. 타이거 우즈님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그에게 피부색 등에 관해 맹한 질문을 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 저는 골프선수입니다. 나는 그처럼 오직 자신의 할 일에 충실한 타이거 우즈님을 진짜 존경해요. 골피고 맹한 저명인사님, 제발 그의 인품과 지성을 따라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마크, 벨기에)' 게재된 댓글 중 몇 가지다.

글 하나하나가 한 여름의 풀잎처럼 풋풋하면서도 먼도날과 같다. 자신의 현재 신분과 성취기에 대한 지나친 자기만족은 오만과 독성을 부른다. 그리고 이는 경거망동과 판단결여를 함께 끌고 곧장 자기파멸의 지름길로 치달는다. 순간의 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흔들리고 560억 원 남짓의 손해마저 봤다는 샤론 스톤 보살님은 이제 더 큰 공부의 길로 들어선 듯하다.

여기저기 걸림돌에 채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지혜를 깨우쳐야 할 수행(修行)이 아닐까? 반드시 성불하시리라 믿는다.

편역 : 성휴 스님, 출처 : BBC, 中國新聞社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6

# 혼돈 속에서 '참나' 를 만나다

부도의 이혼과 부친의 파산으로 가정은 붕괴되고 이역만리 사이공까지 가서 잠시 강사생활, 그리고 상선함대의 청소부가 되어 갑판을 뛰다가 예일대학 선 언제부터 동양철학에 그처럼 통달하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賢者)다. 나는 내가 아는 게 없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일부 유명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덩달아 뛰어보겠다고 풍수를 떨죠. 타이거 우즈님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그에게 피부색 등에 관해 맹한 질문을 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 저는 골프선수입니다. 나는 그처럼 오직 자신의 할 일에 충실한 타이거 우즈님을 진짜 존경해요. 골피고 맹한 저명인사님, 제발 그의 인품과 지성을 따라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마크, 벨기에)' 게재된 댓글 중 몇 가지다.

당시 미국에는 징병제가 있어 얼마간 행세한다는 미국 가정의 아들들은 평화주의나 양심적 집총거부 등 온갖 잔머리를 굴리며 캐나다 등지로 살살 내뺐다. 토막토막 난도질이 난 어린 삶이 막 이십대로 접어들어 1967년, 그는 베트남에 징병을 자원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각각은 커녕 존재이유마저 거의 상실한 그는 전투부대로 배속 신청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학대적 파행이자 자포자기적인 돌출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선택'을 통해 그는 휴머니즘 같은 혼돈 속에서 되레 수정구슬처럼 정갈한 질서를 들여다보는 방편을 터득한다. 마침내 '나'의 참 모습을 헤아리게 된 그는 나 자신

부도의 이혼과 부친의 파산으로 가정은 붕괴되고 이역만리 사이공까지 가서 잠시 강사생활, 그리고 상선함대의 청소부가 되어 갑판을 뛰다가 예일대학 선 언제부터 동양철학에 그처럼 통달하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나는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賢者)다. 나는 내가 아는 게 없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분야에서 성공한 일부 유명인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덩달아 뛰어보겠다고 풍수를 떨죠. 타이거 우즈님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그에게 피부색 등에 관해 맹한 질문을 하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 저는 골프선수입니다. 나는 그처럼 오직 자신의 할 일에 충실한 타이거 우즈님을 진짜 존경해요. 골피고 맹한 저명인사님, 제발 그의 인품과 지성을 따라하지 마세요. 참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마크, 벨기에)' 게재된 댓글 중 몇 가지다.

베트남인들이 현장에서 벌목하여 절벽에 걸쳐 사용한 후 후처마저 없애버리는 즉석목조교량과 진창길의 임시포장도로, 대나무 땃목과 부교로 오가는 하천, 논밭 등을 통칭한 것이다. 게다가 이 루트는 주로 병력보충과 임호병력 이동을 지원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각각은 커녕 존재이유마저 거의 상실한 그는 전투부대로 배속 신청한다. 이는 일종의 자기학대적 파행이자 자포자기적인 돌출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기선택'을 통해 그는 휴머니즘 같은 혼돈 속에서 되레 수정구슬처럼 정갈한 질서를 들여다보는 방편을 터득한다. 마침내 '나'의 참 모습을 헤아리게 된 그는 나 자신

## 인생·진로에 방향 중 베트남 파병 자원

## 전투부대 배속신청 등 자기학대적 파행

를 사랑하는 지혜도 깨우친다.

그의 진창길 만행을 보며 내내 이 말을 떠올린다. 천재성이란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다 (Genius means a capacity for suffering).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어느 미국인 사업가가 오래 전에 들려준 얘기다. 드디어 미군 25보병사단 소속으로 베트남에 간 줄병 올리버 스톤은 모처럼 소원풀이를 한다. 그토록 바라던 격전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인 호치민루트로 보내진 것이다. 이는 북부의 월맹정규군이 남부의 민족해방전선, 흔히 베트남공으로 알려진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병참보급로의 별칭이다.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붙을 때부터 활용된 거미줄 같은 셋길 보급로, 땅벌 집처럼 숨어든 무수한 지하보급구지와 소형군수공장들은 사실상 월맹 국경 밖에 있었다.

이 루트는 인도차이나 전체의 항복투쟁 지도자인 호치민의 영향권인 라오스 산악지대를 따라 내려오다 캄보디아 접경지대에서 다시 월남으로 끼어들었다. 특히 이 분기점은 그가 배치될 즈음 미군폭격기의 무지마치한 공격을 받는다. 그 루트가 대체로 밀림 속에 은폐된 소

를 사랑하는 지혜도 깨우친다. 그의 진창길 만행을 보며 내내 이 말을 떠올린다. 천재성이란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다 (Genius means a capacity for suffering).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어느 미국인 사업가가 오래 전에 들려준 얘기다. 드디어 미군 25보병사단 소속으로 베트남에 간 줄병 올리버 스톤은 모처럼 소원풀이를 한다. 그토록 바라던 격전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인 호치민루트로 보내진 것이다. 이는 북부의 월맹정규군이 남부의 민족해방전선, 흔히 베트남공으로 알려진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병참보급로의 별칭이다.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붙을 때부터 활용된 거미줄 같은 셋길 보급로, 땅벌 집처럼 숨어든 무수한 지하보급구지와 소형군수공장들은 사실상 월맹 국경 밖에 있었다.

스크린에서 보듯 밀림에서 멋있게 총격을 벌이다가는 우리 편끼리 죽이는 수도 있다. 베트남공격수는 대체로 일본식 구닥다리 소총으로 두세 방을 쏘서 반응을 본 다음 순식간에 사라진다. 월맹정규군의 공세에 앞서 최종위 치확대전, 흔히 베트남공으로 알려진 게릴라들을 지원하는 병참보급로의 별칭이다.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붙을 때부터 활용된 거미줄 같은 셋길 보급로, 땅벌 집처럼 숨어든 무수한 지하보급구지와 소형군수공장들은 사실상 월맹 국경 밖에 있었다.

성휴 스님

## 북경올림픽 선수단 명예고문 출신 81세 심운 스님 위촉

6월 6일 타이완 올림픽위원회는 중국본토 장수성 출신인 금년 81세의 심운(심운) 스님을 오는 8월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 파견할 대표선수단의 명예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중국 측의 개막식참석 요청을 수락한 심운 스님은 이 영광을 약 80명의 타이완 선수들과 나누고 싶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불교가 이념적으로 분단된 중국과 타이완이 공유한 장구한 역사와 문화적 일체감을 다시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上海日報

구독문의 | 02-2004-8200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It was a large glass of soy sauce" "그건 간장 한 바가지였어요"

An earthquake shook the entire Zen temple and destroyed parts of it. When it stopped, the young master told his terrified disciples, "Now you have witnessed how a Zen master like me behaves in a crisis. As you have noticed, I did not panic. Fully aware of what was happening, I led you all to the kitchen, where we have all survived. However, for all my discipline and composure, I felt a little bit tense and had to drink a large dipper of water there." He suddenly stopped his long lecture and shouted at one of the disciples, "Hey, you there! What are you laughing at?" The disciple timidly replied, "That, that wasn't water, it was a large glass of soy sauce." Another disciple giggled, "Cheap show-off, again."



지진이 절을 뒤흔들고 몇 군데를 무너뜨렸다. 지진이 멈추자 젊은 선사가 겁먹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나와 같은 선사들이 위기에 어찌 대처하는지 잘 봤으리라. 너희들도 알듯, 나는 허둥대지 않고 상황파악을 잘 해서 모두를 주방으로 데려가 살렸네. 하지만 내 내공과 평상심이 잠시 흔들려 거기서 물 한 바가지가 들이켰더니라." 한참 연설을 하던 그가 느닷없이 뺨 소리쳤다. "암마, 거기 내! 왜 웃어?" 제자가 어눌하게 대답했다. "그, 그건 물이 아니라 간장 한 바가지였 습니다." 다른 제자가 키득댔다. "야휴, 또 싸구려 허세로군."

번안 :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집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 봉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중심, 축복당,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점, 각종스포츠센터, 헬스클럽, 분양사무소, 인형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영험의 구슬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천룡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진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 사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룡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천룡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진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 사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룡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명명하고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 다라니 福 지갑

###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 은니, 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비호할 수 없는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니나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